

수원주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2020. 1. 1(가해) / 특집호



희망의 여정인 평화: 대화와 화해와 생태적 회심

1. 장애와 시련에 맞서는 희망의 여정인 평화

평화는 소중한 선(善)입니다. 평화는 우리 희망의 대상이고 온 인류 가족의 열망입니다. 평화를 향한 희망은 실존적 긴장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실존적 긴장 덕분에,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현재라면, 그리고 이 목표를 확신할 수 있다면, 또한 이 목표가 힘든 여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온갖 어려움 안에서조차 현재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¹⁾ 따라서 희망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들이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여정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는 덕목입니다.

하느님께 공동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는, 이 공동의 기원에 기초하고 대화와 상호 신뢰로 이루어지는 참형제애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채울 때까지는 만족한 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기억과 연대와 형제애에 기초한 경청의 여정인 평화

세상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확신에 찬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곧, 배척이나 조작 없이 대화에 열려 있는 평화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견해와 이념을 뛰어넘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확신에 찬 대화 없이는, 참평화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언제나 공동선을 추구하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며 법을 존중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상호 경청은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이끌 수 있고, 심지어 원수에게서 형제자매의 얼굴을 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의 여정은 지속적인 투신을 요구합니다. 평화의 여정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복수심보다 훨씬 강한 공동의 희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을 여는 인고의 노력입니다. 지역과 국가와 전 세계 공동체의 모든 차원에서, 각 개인이 책임감 있는 기여를 하는 사회를 건설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베네딕토 16세,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1항



3. 형제적 친교 안에서 이루는 화해의 여정인 평화

성경은 특히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개인과 민족들에게 하느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계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욕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를 인격체로, 하느님의 자녀로, 형제자매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그가 한 말이나 행동에만 국한시켜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하느님 약속을 보고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존중의 길을 선택할 때에만, 우리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희망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여정은, 용서하는 힘과 서로를 형제자매로 알아볼 역량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에서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법을 익힐 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더욱 커집니다.

4. 생태적 회심의 여정인 평화

우리는 타인을 향한 적개심과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발생한 결과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 자원에 대한 과도한 착취를 감행한 결과도 마주합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 공동선, 자연에 대한 고려 없이 목전의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천연 자원을 여기는 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태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열린 '범 아마존 지역에 관한 주교대의원회의 특별 회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공동체와 땅, 과거와 현재, 경험과 희망의 평화로운 관계를 새롭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생태적 회심은 창조주의 너그러움을 생각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생명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줍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구를 주셨고 기쁨과 절제로 그것을 공유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러한 회심은 관계들의 변화로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 다른 살아 있는 존재들, 풍요롭고 다양한 피조물, 그리고 모든 생명의 기원이며 원천이신 창조주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5. 우리는 희망하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²⁾

화해의 여정에는 인내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희망하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는 평화의 가능성을 믿고 다른 이들도 우리만큼 평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감도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유롭게 해

2) 십자가의 성 요한, 「어두운 밤」 II, 21,8 참조

주고 무한하며 무상으로 주어지고 지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자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이끄시어 우리가 정의와 평화의 장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평화의 하느님,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평화의 군왕의 어머니이시며 지상의 모든 민족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화해의 여정으로 가는 모든 걸음마다 저희를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그들 안에 간직하고 있는 사랑과 생명의 약속을 온전히 실현하게 되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2019년 12월 9일
프란치스코



※ 담화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www.casuwon.or.kr) 공지사항 참조

+ 제1독서
민수 6,22-27

입 당 송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 제2독서
갈라 4,4-7

화 답 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복음
루카 2,16-2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영 성 체 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1면 그림 : “천주의 모후” 심순화 카타리나 작